

내담자의 심리적 반발과 자유의지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고찰

고 광 제*

국문초록

본 논문은 기독교상담 장면에서 자주 나타나는 내담자의 심리적 반발을 단순한 불순종이나 저항으로 보기보다, 자율성과 신앙 사이의 긴장 속에서 나타나는 복합적 현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Brehm의 반발 이론과 Deci & Ryan의 자기결정 이론을 중심으로 반발의 심리적 구조를 분석하고, Luther, Calvin, Edwards, Owen, Murray, Packer 등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을 통해 자유의지와 순종의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Crabb과 Adams의 상담이론, Rogers의 무조건적 존중 등을 바탕으로 반발의 수용 가능성과 순종으로의 전환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반발을 억압 대상이 아니라 자율성과 정체성 회복을 알리는 신호로, 순종을 강제된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내적 성숙 과정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상담자는 반발-순종 긴장을 정죄하기보다 경청·공감·재해석으로 동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상담자의 반발, 반발 이면의 다중정서를 실증적으로 다루지 못한 제약이 남았다. 향후 ‘반발-수용-응답’ 과정을 질적으로 분석해 통합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반발은 순종을 여는 질문이며, 상담자의 기다림과 동행이 자유의지 회복과 영적 성숙을 돕는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통합 관점은 반발 낙인을 해소하고 돌봄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다.

주제어: 심리적 반발, 자유의지, 기독교상담, 자율성, 영적 순종

* 브니엘고등학교 교목

I. 여는 글

기독교상담의 핵심은 인간 내면의 변화와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돕는 데 있으며, 이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신뢰와 정서적 상호작용이 중심이 되는 관계적 역동 속에서 전개된다. 그러나 실제 상담 장면에서는 상담자의 조언이나 권면이 내담자의 저항을 유발하여 상담이 중단되거나 그 효과가 제한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저항적 반응은 불성실이나 반항으로 치부되기보다는, 자율성이 위협받았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 반발(psychological reactance)로 해석될 수 있다(Brehm, 1966; 김미숙, 윤미선, 2010). 특히 기독교상담에서는 ‘순종’이라는 개념이 신앙적 덕목으로 이해되지만, 이 순종이 내담자에게 강요되거나 의무적으로 전달될 경우, 자율성의 침해로 인식되어 내면적 반발과 신앙적 거리감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현대 상담 현장에서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탈권위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청소년, 청년 및 성인 내담자들은 상담자의 권면이 종교적 권위로 들릴 때, 그것을 정서적 억압이나 통제의 언어로 인식하여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자주 관찰되곤 하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개인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탈종교화 현상, 개인주의 문화, 정체성 다원화 같은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대의 기독교 상담자는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율성을 존중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보장하는 상담 언어와 자세를 모색해야 할 시대적 요청 앞에 서 있다.

기독교상담의 고유성은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선 전인격적 존재로 바라보며, 그의 내적 반응을 단지 심리기제로 환원하지 않고 영적 갈등의 표현으로 이해하려는 데 있다(조성국, 1998). 내담자의 반발은 상담자의 개입 방식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욕망 사이에서 경험하는 신앙적 긴장의 외현일 수 있다. 따라서 반발을 문제 행동이나 순종 부족으로 해석하기보다, 그 내면에 담긴 심리적 갈망과 신학적 혼란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통합적 시각이 요구된다. 이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반응을 ‘신앙의 언어’로 경청하고 동행할 수 있는 기독교 상담적 해석력을 기르는 데 중요하다.

실제로 동일한 반응을 두고도 심리학과 신학의 해석이 극적으로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내담자가 상담자의 권면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질문에 무기력하게 응답할 때, 심리학적으로는 자기효능감의 결핍이나 통제감 상실로 해석되지만, 신학적으로는 회개하지 않으려는 완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김은우, 2020). 이런

해석의 간극은 상담자의 대응 태도를 결정짓기 때문에, 기독교 상담자는 심리학과 신학을 일방적으로 대입하기보다 서로를 해석하고 증재할 수 있는 신중한 해석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곧 자유의지에 대한 신학적 질문으로 이어진다. 타락 이후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손상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선한 결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은 기독교 신학의 오랜 논쟁 가운데 하나이다. Luther(1957)는 『의지의 속박』에서 인간의 의지는 죄로 인해 전적으로 무능해졌으며, 구원을 위한 선택은 인간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라 하였다. Calvin(1559) 역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이 없으며, 성령의 내적 조명 없이는 어떠한 바른 선택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전통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순종을, 윤리적 행위가 아니라 은혜에 의한 관계적 응답으로 이해해야 함을 시사한다(이경직, 2016; Turretin, 199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기독교상담 연구들은 반발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반발을 일관되게 부정적 반응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존재해 왔다. 실제로 Jay E. Adams(1970)을 중심으로 한 고전적 성경적 상담 진영에서는 반발을 ‘죄된 습관’이나 ‘불순종의 태도’로 간주하여 이를 교정의 대상으로 보았으며, Larry Crabb(1977)과 같은 관계 중심 상담 이론 역시 반발을 주로 상처의 결과로 해석하였다. 또한 Powlison(2003)은 반발을 영적 미혹이나 거짓 신념의 표현으로 이해하며, 자율성과 정체성 회복이라는 심리적 관점은 상대적으로 부차화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기독교상담 내에서 반발이 일관되게 부정적 반응으로만 해석되어 온 경향이 존재함을 보여준다(박옥식, 조희원, 유선경, 2011).

특히 반발을 신앙적 미성숙이나 불순종으로 축소하는 관점은 내담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갈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상담자의 일방적 권면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 반대로, 심리학적 이론만을 강조할 경우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역사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 생략되기 쉽다. 따라서 반발을 양면적으로 바라보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며, 기독교상담은 그 중간에서 심리학과 신학의 대화의 장을 여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때 상담자가 ‘기독교적 해석자’로서 서 있는 자리가 중요하다. 반발을 저항이 아닌 신앙과 자아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의미 있는 반응으로 본다면, 상담은 더 이상 설득이나 교정의 과정이 아니라, 해석과 동반의 과정으로 바뀌게 된다. 내담자의 반발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께 응답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되묻는 신호일 수 있다. 이는 상담자에게 빠른 정답보다 깊은 해석과 기다림의 자세를

요구한다(하재성, 2010).

또한 반발은 변화의 가능성이 사라진 증거가 아니라, 변화가 진정으로 시작되려는 초기 흔들림일 수 있다. 진정한 순종은 억눌린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으며, 억압된 반발은 잠재된 순종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기독교 상담자는 이 진실을 직시할 때, 내담자의 저항을 수용하는 용기와 기다리는 신학적 상상력을 함께 품을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심리적 반발'과 '자유의지'라는 두 개념을 중심으로 인간의 저항성과 순종 사이에 존재하는 심리적·영적 역동을 기독교 상담학의 관점에서 성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심리학의 이론적 통찰과 개혁주의 신학의 인간 이해를 통합하여, 내담자의 반발을 보다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독교 상담학적 사고 틀(conceptual framework)을 모색한다.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Jack W. Brehm(1966)의 반발 이론과 Edward L. Deci와 Richard M. Ryan(1985)의 자기결정이론을 통해 반발이 반항이 아니라 자율성을 지키려는 동기임을 확인하고, James J. Gross(1998)의 감정조절 이론을 통해 반발이 정서적 조절 실패와 연동된 반응임을 확인했다. 또한 Carl Rogers(1961)의 무조건적 존중을 통해 내담자가 진정한 자기로 회복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이 모든 이론은 반발을 상담자의 개입 실패로 보기보다, 내담자의 인격적 자율성과 신앙적 탐색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신학적 측면에서는 Luther, Calvin, Edwards를 중심으로 한 고전적 자유의지 신학뿐 아니라, Owen(1674/2004)의 성명론, Murray(1955)의 효과적 부르심, Packer(1973)의 인격적 순종 개념을 통해, 자유의지는 하나님께 향하는 은혜의 응답이라는 시야를 확보하였다. 특히 Kevin J. Vanhoozer(2005)의 드라마 신학을 통해 순종을 복종이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 속 자기 역할을 살아내는 인격적 응답이라는 개념을 살펴보고, Eugene H. Peterson(2000)의 '반발조차도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적 진실함' 일 수 있다는 관점까지 함께 살펴보았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기독교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심리적 반발은 어떠한 심리적·신학적 구조 속에서 나타나며, 이는 상담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자유의지에 대한 심리학적 및 신학적 관점은 어떤 차이를 가지며, 이 두 관점을 기독교 상담학의 틀 안에서 어떻게 통합하고 해석할 수 있는가?

셋째, 반발과 순종 사이의 긴장을 해석하고 동반하는 데 있어, 상담자는 어떠한 신학

적·심리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임상적 태도를 구성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문헌연구(methodological literature review)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심리학의 이론, 개혁주의 신학, 그리고 기독교 상담학의 통합적 성찰을 바탕으로, 반발과 순종 사이의 심리적·신학적 긴장을 조율할 수 있는 기독교 상담학적 해석의 틀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내담자의 자율성과 신앙 성숙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상담자의 태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오늘날 기독교 상담자는 단지 상담 기법의 전달자나 성경적 조언자에 머무르지 않고,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의 자유의지와 신앙 사이의 긴장을 해석하고 동반하는 목회적 해석자로서의 정체성을 요구받고 있다. 상담자의 언어 한 마디, 침묵의 방식, 표정과 기다림의 태도는 내담자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상담자는 복음의 내용을 진실되게 전달하면서도, 내담자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도록 여백을 마련하는 ‘관계적 안내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II. 펴는 글

1. 심리적 반발 이론의 이해

상담 장면에서는 내담자가 상담자의 조언이나 권면에 대해 명확한 이유 없이 반응을 유보하거나 거부하는 모습이 관찰될 때가 있다(김미숙, 윤미선, 2010). 이와 같은 태도는 때로는 비협조적이거나 수동공격적인 행동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자율성 상실에 대한 반응일 가능성이 크다(Rosenberg & Siegel, 2018).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 내담자는 그것을 압박이나 통제로 지각할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심리 이론이 바로 심리적 반발(reactance)이다. Brehm(1966)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의 자유가 위협받거나 제한되었을 때, 그 자유를 회복하려는 강한 심리적 동기를 경험한다고 설명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그 선택의 중요도와 관계없이 단지 ‘자율성이 위협당했다는 지각’만으로도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특히 기독교상담에서 처럼 권위적 조언이 빈번히 사용되는 맥락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예를 들어, 기독교 상담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함을 강조하며 성경적 조언을 제공하지만, 내담자는 그 말이 “나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다. 이때 내담자의 내면에서는 감정적으로 밀려나는 느낌, 즉 ‘나의 공간이 침해되었다’는 인식이 발생하며, 이는 곧 정서적 방어와 인지적 저항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라는 반응은 불순종이 아니라, 자기결정권을 지키려는 심리적 몸짓일 수 있다(박옥식, 조희원, 유선경, 2011).

Rosenberg & Siegel(2018)은 이러한 반발을 특정 성격이나 문제 행동이 아니라, 맥락 속에서 유발되는 ‘정상적인 심리적 반응’으로 정의한다. 그들은 특히 제한된 선택지, 권위적 표현, 정당만을 요구하는 방식이 반발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며, 자율성의 지각이 약해질수록 방어적인 태도는 더욱 강해진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기독교상담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언어가 내담자에게 어떻게 들릴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을 요청한다.

기독교상담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반발이 ‘불순종’으로 오해되기 쉬운 이유 중 하나는, 신앙의 언어가 자칫 권위주의적 맥락 안에서 전달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 말씀의 권위, 영적 진단과 같은 언어가 내포하고 있는 절대성과 도덕성은 내담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는 곧 자율성을 방해하는 심리적 환경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반발은 종종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이 전달되는 방식에 반응하는 정서적 반사일 가능성이 있다.

심리적 반발은 단지 인지적 저항의 차원을 넘어서, 감정조절의 실패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Gross(1998)의 감정조절 이론에 따르면, 감정은 발생 초기부터 해석, 표현, 억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조절되는데, 반발은 이 과정 중 해석 단계에서 ‘위협’으로 지각된 감정이 제대로 조절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내담자는 자신의 감정이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속에서, 감정적으로 문을 닫고 저항하는 방향으로 자신을 보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감정조절의 실패가 반복될수록 내담자는 점점 더 자신의 감정 표현을 억제하거나 왜곡하게 된다. 이런 왜곡된 감정 상태에서는 내면의 반발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상담자에 대한 신뢰 저하, 주제 회피, 방어적 질문 회피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감정의 흐름이 단절된 상태에서는 반발의 실체를 상담자가 직접적으로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상담자는 정서적 분위기와 비언어적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Crabb(1977)은 인간 내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향한 갈망과 동시에, 자율

성이 억압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갈등을 신앙적 갈망과 인간적 불안이 만나는 접점으로 보며, 상담자는 반발을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 탐색하려는 첫 시도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반발이 회피가 아니라, 자기 신앙을 자기 언어로 재구성하려는 시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심리적 반발은 또한 내담자의 실존적 불안과 연결되어 있다. 내담자는 상담실에서 '무엇이 옳은가'보다 '내가 왜 이것을 원하지 않는가'를 먼저 고민할 수 있으며, 그 고민은 자주 자기 정체성과 의미의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때 상담자가 도덕적 잣대를 앞세울 경우, 내담자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더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최영아, 김희화, 2011). 이 말은 상담자는 반발이 오히려 영적 진실성의 표현일 수 있다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실존적 차원에서 반발은 신앙의 언어가 내담자의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날 수 있다. 어떤 내담자는 기도나 예배, 성경적 가치에 내면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과거의 실패 경험이나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신앙적 권면을 즉각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태는 무신앙이라기보다 '내가 정말로 그 길을 다시 걸을 수 있을까'라는 자기 신뢰의 문제일 수 있다. 반발은 때때로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회복의 갈망이 뒤엉킨 복합 정서의 표출이다.

계속해서 반발은 단절된 관계나 상처받은 영적 경험의 반영일 수 있다. 과거의 종교적 상처, 권위자에게 받은 억압적 경험은 상담자가 신앙적 언어를 사용할 때 자동적으로 내담자의 방어체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때 상담자가 "왜 거부하세요?"라고 묻는다면, 그 반발은 더 큰 파도를 일으키겠지만, 대신 "그 말이 혹시 부담스럽게 느껴지셨나요?"라는 식의 정서적으로 탐색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반발은 폐쇄가 아닌 탐색의 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때로는 상담자의 태도 역시 반발의 촉진 또는 완충 요인이 된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반발을 정죄하거나 조급하게 설득하려 할 경우, 내담자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관계적으로 거리를 두게 된다. 반대로 상담자가 비판단적이고 공감적인 태도로 반응할 때, 내담자는 점차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게 된다. 이는 Rogers (1961)가 강조한 무조건적 존중과 공감의 원리가 반발의 장면에서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심리적 반발 이론은 기독교 상담자에게 내담자의 정서와 의지를 보다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반발은 단지 문제행동이나 죄성이 아니라, 자율성과 신앙 사이에서 긴장하는 인간 존재의 '상태'이며, 상담자는 이 긴장

을 억누르지 않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을 열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는 상담자가 반발을 '신앙의 부재'가 아니라, '응답을 위한 준비 상태'로 해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2. 자유의지에 대한 심리학적 및 신학적 고찰

1) 자유의지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

일반적으로 자유의지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개념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며, 상담 현장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다. 예컨대, 어떤 내담자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라고 말함으로써 변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거나, 자기결정에 대한 체념을 표현한다. 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까 저는 따르기만 해요"라는 말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는 동시에, 스스로의 자유를 유보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이처럼 자유의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 책임, 정체성, 신앙에 대한 태도를 포괄하는 심리적 구조이다.

특히 기독교상담에서는 자유의지를 단지 도덕적 선택의 능력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결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실존적 긴장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내담자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혼란을 경험하고, 이러한 갈등이 상담 장면에서 '회피', '혼란', '반발' 등의 방식으로 표출된다. 상담자는 자유의지라는 개념을 통해 이러한 갈등의 구조를 해석하고, 순종/불순종의 여부가 아닌 내면의 긴장과 싸움에 주목해야 한다(Johnson, 2007).

심리학은 자유의지를 고립된 선택 행위가 아닌, 동기의 방향성, 자기통제력, 행동의 주체성과 긴밀하게 연결된 개념으로 본다. 특히 Deci & Ryan(1985)의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은 인간의 건강한 동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라는 세 가지 기본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 중 자율성은 개인이 외부의 강제나 보상 없이 내면의 신념과 가치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기결정의 표현이다.

상담자는 이러한 자율성의 개념을 실천적으로 내담자와의 관계 속에 구현해야 한다. 내담자의 자율성이 존중받고 있다는 경험은 상담 관계의 핵심 조건이며, 이를 통해 내담자는 변화의 주체로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반면, 상담자가 의도치 않게 권위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내담자의 선택 여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입할 경우, 상담은

저항과 반발의 벽에 부딪힐 수 있다(Rosenberg & Siegel, 2018). 따라서 상담자는 진리를 전하면서도 내담자가 자신의 템포와 언어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ric L. Johnson(2007)은 심리학과 신학의 통합을 강조하며, 반발과 자유의지, 정체성 회복이 모두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라는 구속사적 서사 안에서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기독교상담은 단지 문제를 교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영적 중재이다. 이와 유사하게, Gary Collins(2007)는 상담자는 설득자나 판단자가 아니라, 내담자의 신앙 결단을 촉진하는 안내자로서 기능해야 하며, 반발이 발생했을 때에도 그것을 신뢰 회복의 기회로 삼는 태도를 강조하였다. 그의 상담 모델은 '경청-수용-지도-위탁'이라는 흐름 속에서 내담자의 자유와 신앙적 응답이 균형을 이루도록 돕는 구조를 지닌다. 이러한 상담적 태도는 내담자가 자신의 선택과 응답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자유의지를 온전히 행사한다는 것은 선택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내적 자세를 포함한다. 내담자는 종종 상담자에게 "무엇이 옳은가"를 묻지만, 상담자의 태도에 따라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싶은가"로 질문이 전환되기도 한다. 이러한 전환은 상담 장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내담자가 자율성과 신앙 사이의 진실한 긴장 안에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조망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내담자의 의지가 약화되었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일 때, 상담자는 정답을 제공하기보다 내담자가 자기 안에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신앙의 진리를 제시하되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의 공간' 안에서 다룰 때, 진리는 강요가 아니라 초청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자유의지를 단지 윤리적 기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되고 표현되어야 할 실존적 기능으로 이해하는 상담자의 신학적 성찰을 반영한다.

Brehm(1966)은 인간이 자신의 자유가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그것을 되찾으려는 동기를 가지며, 이는 감정적 저항이나 반작용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반응은 단지 고집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내담자가 자율성을 얼마나 '지각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인지·정서적 반응이다(Rosenberg & Siegel, 2018). 예를 들어, 상담자가 동일한 조언을 하더라도 그것이 선택지로 제시되었는지, 혹은 정답처럼 단정지어졌는지에 따라 내담자의 반응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Baumeister & Tierney(2011)는 자유의지를 자기통제(self-regulation)의 능력과 연결지며, 인간은 기계적으로 욕망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장기적 목표와 도덕적

가치에 따라 충동을 조절하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존재라고 설명한다. 이들은 자유 의지를 '무한한 가능성'이 아닌, 책임 있는 자기조절 능력의 표현으로 해석하며, 이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함께 강화해야 함을 시사했다.

결과적으로 자유의지는 기독교상담에서 매우 유의한 심리학적 기반이 될 수 있다. 인간은 자율성을 원하면서도, 관계 안에서 인정받고 의미를 찾고자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상담자가 일방적 진리를 선포하거나 해답을 강요할 경우, 내담자의 자기결정감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반면,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그 자유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도록 도울 수 있다면, 상담은 문제 해결을 넘어 의지와 정체성 회복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2) 자유의지에 대한 신학적 고찰

기독교 신학에서 자유의지(free will)는 언제나 구원, 죄, 인간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연결되어 왔다. 심리학이 자유의지를 선택과 자기통제의 문제로 다루는 반면, 기독교 신학은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순종의 가능성과 책임성으로 이해해 왔다(Turretin, 1992). 특히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성경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Luther(1557)는 그의 저작 『의지의 속박』에서, 타락 이후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께 참되게 순종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구원을 위한 선택의 자유는 인간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유를 인간의 선택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능력으로 이해했으며,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회복될 수 있다고 보았다.

Calvin(1559) 역시 『기독교강요』에서 인간의 의지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의지가 죄에 의해 왜곡된 방향성을 지녔다고 강조하였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내적 조명과 은혜를 통해서만 올바른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이경직, 2016). 이러한 관점은 인간의 의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한다는 신학적 겸손의 고백이라 할 수 있다.

개혁주의 신학은 자유의지를 타락 이후에도 유지되는 인간 능력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속적 역사 안에서 회복되는 응답의 기능으로 해석해 왔다(하재성, 2010; 신문철, 2023). 이 관점을 심화시킨 인물 중 하나가 John Owen(1674)이다. 그는 『성령의 사역(The Holy Spirit)』에서 성령은 인간의 의지를 내면에서 변화시키는 주체로 작용하며, 참된 회심은 인간의 결단이 아닌 성령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진다

고 보았다(Owen, 1674/2004). 이러한 시각은 기독교상담에서도 중요하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결단을 끌어내려 하기보다는, 그 의지가 성령의 조명 아래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인지를分辨하고, 기도와 기다림으로 동반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Jonathan Edwards(1754)는 이러한 신학적 전통을 더욱 정교하게 체계화하였다. 그는 자유의지를 가능성보다는 욕구(will)의 방향성으로 정의하면서, 인간은 자신의 가장 원하는 바에 따라 행동한다고 설명하였다(강미진, 2018; 이진락, 2016). 그렇다면 타락한 인간은 본성상 죄를 '원하기에' 자유롭게 죄를 선택하며, 이는 결보기에는 자유로우나 실제로는 죄된 본성에 종속된 자유라는 개념으로 귀결된다. 이런 점에서 인간이 아무리 선택할 자유를 지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는 한 그 자유는 참된 방향을 가질 수 없다.

Edwards(1754)의 이러한 주장은 기독교상담의 핵심인 '순종의 내면화' 문제와 깊이 맞닿아 있다. 내담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외적 교정이나 정보 전달로는 이를 수 없으며, 자신의 욕구 체계가 변할 때 가능하다. 이는 곧, 상담자는 단지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내면에서 성령의 감화와 가치 재구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존재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이해는 John Murray(1955)의 효과적 부르심(efficacious calling) 개념에서도 반복된다. 그는 인간의 회심은 성령의 외적 감동이 아닌 내면의 새 창조로 이루어지며, 자유의지는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결과임을 강조하였다(Murray, 1955). 이는 기독교상담에서 상담자의 역할이 순종을 명령하거나 조작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담자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영적 동행자의 자리임을 시사한다.

이런 신학은 상담자의 언어와 태도에도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권면하기 이전에, 내담자가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원할 수 있는' 상태인지分辨해야 하며, 그 과정에 시간과 정서적 여유를 허용해야 한다. 자유의지를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상담자의 기술이나 설득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생각은 오히려 반(反)성경적일 수 있다.

또한 James I. Packer(1973) 역시 『Knowing God』에서 순종은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관계 안에서 자발적으로 흘러나오는 신뢰와 헌신의 반응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상담자는 신앙을 지시하거나 전달하는 권위자가 아니라, 내담자가 자발적 응답을 할 수 있는 관계적 장을 조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관점과도 연결된다(Packer, 1973). Packer(1973)의 이러한 이해는 특히 '강요 없는 순종'이라는 기독교

상담의 목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내담자가 변화하고 순종하게 되는 과정은 외부로부터의 종교적 권면이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만남에서 비롯된다. 상담자는 그 만남이 일어날 수 있는 관계적 공간을 제공할 뿐, 순종의 타이밍이나 형태를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신학적 통찰은 상담 장면에서 '순종'과 '결단'을 강조할 때 특히 중요하다. 상담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한 도덕적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미리 역사한 후 내담자의 회복된 의지가 응답하는 결과로 요청되어야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안에 있는 결정임을 인식할 때, 상담은 더욱 성경적이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신학은 말한다. "인간은 스스로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기독교상담은 이 신학적 진리를 바탕으로, 내담자의 자율성과 자유를 억압하거나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을 돕는 은혜의 사역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3. 기독교 상담학적 통합 시도

1) 반발과 자유의지 개념에 대한 이중 구조 이해

기독교 상담학이 심리학과 신학을 통합하려는 시도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개념적 과제 중 하나는 '자유의지'와 '반발(저항)'이라는 두 핵심 개념의 이중 구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Brehm, 1966; Gross, 1998). 이 두 개념은 모두 인간의 선택과 결단을 전제하지만, 심리학과 신학은 그 출발점과 해석의 지평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차이를 간과하거나 단순화할 경우, 내담자의 반응을 왜곡된 신앙적 틀로만 해석하거나, 상담 개입이 불필요하게 도덕적 판단이나 율법주의로 기울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심리학과 신학은 모두 인간 내면의 선택 구조에 주목하지만, 심리학은 자율성과 자기표현,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응답성과 관계성을 중심으로 개념을 구성한다(Deci & Ryan, 1985; Turretin, 1992). 그러나 양자의 공통점은 인간이 자유와 통제, 자율성과 책임, 자기결정과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서 본질적으로 긴장하고 있다는 전제를 공유한다는 점이다. 이 지점은 기독교 상담자가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의 반응을 해석할 때, 심리적 해석과 신학적 통찰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이러한 통합적 관점은 내담자의 반응을 '신앙적 부족함'이나 '심리적 문제'로 분류하지 않고, 그 반응 안에 담긴 내면의 이중적 긴장, 즉 자율성과 신앙적 순응 사이에서 일어나는 복합적 과정을 이해하게 한다(Johnson, 2007). 반발이 드러나는 그 순간은 단지 상담자의 권면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자신 안의 욕망과 믿음, 두려움과 소망이 충돌하는 지점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상담 장면을 예로 들어보자. 내담자가 반복적으로 상담자의 조언을 거부하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할 경우, 상담자는 이를 게으름이나 불순종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자율성을 회복하려는 심리적 움직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는 영적 갈등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Rosenberg & Siegel, 2018). 이중 구조를 이해하는 상담자는 내담자의 반응을 단편적 행위로 판단하기보다, 그 내면에 작용하고 있는 정서적, 신학적 갈등의 층위를 함께 성찰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상담자가 즉각적인 해결이나 순종의 결단을 유도하는 대신, 내담자의 저항이 의미하는 심리적·신학적 맥락을 충분히 경청하고 기다리는 태도로 전환되도록 도와준다. Gross(1998)는 감정조절 이론에서 감정은 억제될수록 더 강하게 반응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는 반발 역시 억제나 통제가 아닌, 해석과 공감의 여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더욱이 내담자의 반발은 종종 상담자와의 관계 안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내담자의 문제로만 간주해서는 안 된다. 상담자의 언어와 태도가 지나치게 권위적이거나,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은 채 정답을 제시하려 할 때, 내담자는 자신의 자율성이 침해되었다고 느끼고 방어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김미숙, 윤미선, 2010). 반발은 단지 내담자의 불성실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내가 이해받고 있는가’에 대한 시험일 수 있다.

기독교 상담자에게는 이 반발의 순간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단지 갈등이나 실패의 순간이 아니라, 내담자가 신앙에 대해 처음으로 자신의 언어로 묻고, 재해석하려는 출발점일 수 있기 때문이다(최영아, 김희화, 2011). 반발은 순종을 향한 반작용이 아니라, ‘나도 진심으로 순종하고 싶은데 정말 이게 맞나요?’라고 묻는 질문일 수 있다. 그 질문은 내담자가 복음을 내면화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반발과 자유의지의 긴장은 단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상담자가 반드시 동반해야 할 과정이라는 점에서 상담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상담자는 반발을 제거하려 하지 말고, 반발 안에 담긴 신앙적 탐색의 움직임을 경청해야 한다. 이는 내

담자가 기존의 순응적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한 신앙의 주체로 나아가는 성장의 단계이기도 하다.

기독교상담의 목적이 단지 순종 유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발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면, 반발은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 중 하나일 수 있다(하재성, 2015). 반발을 통해 내담자는 자신의 신념을 되묻고, 자유를 체험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의지를 연결짓는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독교 상담자는 내담자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동시에, 그 자유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재조정되도록 돕는 존재다. 자유를 ‘네 맘대로 하라’는 허용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안내하는 것이 기독교 상담자의 역할이다(Packer, 1973).

내담자가 저항하는 이유가 단지 진리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복음에 대한 수용은 정보나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응답이다. 따라서 상담자는 신학적 진리를 ‘전달’하기보다, ‘이해되고 응답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때 상담자의 침묵, 질문의 방식, 말의 톤과 같은 비언어적 태도는 내담자가 느끼는 하나님의 얼굴이 된다. 상담자는 단지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복음의 방식과 온도를 담아내는 존재이며, 반발의 장면은 그 진정성이 드러나는 중요한 장면이다.

결국 반발과 자유의지의 이중 구조에 대한 이해는 기독교상담의 이론과 실재를 연결하는 토대가 된다. 상담자는 반발을 교정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의지가 어디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반발은 순종의 반대가 아니라, 순종의 본질에 대해 질문하는 첫 문일 수 있다.

기독교 상담자는 내담자의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그것이 그저 자기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는 자리에서 회복되도록 동반해야 한다. 다시 말해, 기독교 상담자는 자율성과 신앙이 만나는 접점을 해석하고 안내하는 신학적 해석자이자 심리적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 긴장 위에 선 내담자를 교정하거나 압박하기보다, 신앙적 의미 부여와 감정적 지지를 통해 새로운 관계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담자의 사명이다.

2) 기독교상담 장면에서의 반발-순종 역동 재해석

기독교상담 현장에서 '순종'은 자주 언급되는 핵심 신앙 주제이다. 성경은 순종을 신자의 정체성과 실천을 드러내는 핵심 덕목으로 제시하며(삼상 15:22; 요 14:15), 상담자 역시 내담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상담에 임한다. 그러나 상담자가 사용하는 '순종'이라는 언어가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 그것은 내담자에게 내면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신앙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상처받은 내담자에게 순종이 도덕적 요구나 행동 규범처럼 전달되면, 상담적 신뢰는 약화되고 정체성 탐색의 통로는 닫히게 된다.

실제로 신앙적으로 오랫동안 스스로를 억제해 온 내담자가 상담실에서 "하나님 뜻 말고 제 뜻을 따라도 되나요?"라고 묻는다면, 이는 불순종이나 반항의 표현이 아니라, 진정한 순종의 의미를 자기 목소리로 탐색하려는 첫 시도일 수 있다. 상담자는 이와 같은 반발을 신앙적 결핍으로 간주하기보다, 자율성과 진정성에 대한 욕구가 살아 있다는 신호로 인식하고 경청해야 한다. Gross(1998)가 말한 것과 같이 반발은 통제에 대한 저항이자 자기 정체성의 회복 욕구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내담자들이 상담에서 경험하는 첫 번째 갈등은 '무엇이 옳은가'보다 '내가 그것을 정말 원하는가'라는 물음에 있다. 내담자가 도덕적으로 맞는 답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내면의 동의가 없다면 순종은 형식적인 행위에 머물게 된다. 이 지점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갈등을 해소하려 하기보다, 그 갈등을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질문하고 기다리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Crabb, 1977).

기독교 신학은 순종을 율법적 복종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유롭고 인격적인 응답으로 이해한다(롬 12:1-2). 순종은 강요나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행동이 아니라, 성령의 내면 조명과 인격적 회복 속에서 자발적으로 흘러나오는 결과이다. Peterson(2000)은 『영성의 길을 걷다』에서 순종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내는 길고 꾸준한 여정"이라 설명하였고, 혼란스러운 인간의 반발이 순종을 향한 기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Crabb(1977)은 기독교상담은 인간의 행동을 교정하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동반하는 여정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상담자의 역할은 외적 변화의 유도자가 아니라, 내담자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영적 동반자라고 보았다(Crabb, 1977). 반면 Adams(1970)는 상담자의 명확한 권면과 회개 촉구를 강조하며, 순종은 미룰 수 없는 결단이라고 보았다. 이 두 접근은 상호 대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 전자가 내담자의 내면과 관계 중심이라면, 후자는 신학적 기준과 윤리적 분별을 제공하는 기능을 나누어 갖

는다.

내담자의 순종을 이끄는 데 있어 '관계 중심의 인도'와 '진리 중심의 촉구'는 상호 충돌하는 전략이 아니라, 서로를 균형 있게 보완하는 조율의 요소이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삶의 상황과 정서를 충분히 이해한 뒤, 그 상황 속에서 복음적 분별을 제시할 때, 권면은 외적 지시가 아닌 내면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설득이 될 수 있다.

Rogers(1961)는 상담자에게 진실성(congruence), 공감(empathy), 무조건적 존중(unconditional positive regard)의 태도가 내담자의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내담자의 저항을 교정할 대상이 아닌 정체성과 자기 보호의 표현으로 인식하였으며, 판단 없는 수용의 분위기 속에서만 내담자가 자신을 진실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다. 기독교 상담자 역시 내담자의 반발을 신앙적 미성숙으로 환원하기보다, 자기 일치와 영적 긴장의 표현으로 존중해야 한다.

상담실은 단지 교훈을 주는 장소가 아니라, 진실한 질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두렵습니다" "저는 믿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라는 내담자의 고백이 꾸밈음이 아닌 수용과 동행 속에서 맞이될 때, 반발은 더 이상 관계의 방해 요소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된다.

상담자는 복음을 중심에 두되, 그 전달 방식에서 정서적 안정감과 관계적 여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내담자가 억압이나 의무가 아닌 기쁨과 자유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할 수 있는 상담 장을 열어줄 때, 순종은 더 이상 강요가 아닌 감격의 고백이 된다. 이런 점에서 Johnson(2007)이 말한 바대로, 기독교상담은 오로지 행동 변화만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구속사의 여정에 동행하는 사역이라는 그의 말은 타당하다.

상담 현장에서 순종이 진정한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문자 그대로의 '시간'이 필요하다. 내담자가 감정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고, 충분히 자신의 관점과 상처를 표현한 후에야 비로소 내면의 방향이 정리되기 시작한다. 상담자는 신속한 변화보다 정직한 고백을 더 소중히 여기는 태도로, 내담자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Vanhoozer(2005)는 『The Drama of Doctrine』에서 성경을 구속사적 이야기로 제시하며, 신자는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고 즉흥적으로 수행하는 '해석적 연기자'(improvising performer)라고 설명한다. 이 관점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순종하세요"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이 이 상황 속 당신에게 맡기신 역할은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을 통해 자발적 응답을 유도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상담자가 권위자가 아니라, 내러티브적 성찰을 돕는 정체성 안내자가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내러티브적 접근은 특히 신앙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내담자에게 유의하다. 앵무새처럼 정답을 외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부름을 발견해가는 과정은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에게 신앙을 보다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결론적으로 반발과 순종은 대립적인 감정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서 끊임없이 작용하는 긴장 구조이다. 이 긴장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표현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다. 상담자는 반발을 교정하지 않고 경청하며, 순종을 강요하지 않고 기다리는 태도를 견지할 때, 내담자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스스로 응답할 수 있는 공간을 회복하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상담이 지향해야 할 복음적 동행의 본질이며, 반발에서 순종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여정에 동반자로 참여하는 사역이다.

3) 상담 장면에서의 반발-순종 전환 가능성에 대한 기독교상담학적 고찰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반발과 자유의지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내면에서 긴장 속에 공존하는 구조이다(Brehm, 1966; Deci & Ryan, 1985). 순종은 억압이나 외적 강제가 아닌, 은혜 안에서 회복된 자유의지의 응답이라는 점에서, 반발은 그 회복의 출발점일 수 있다(Edwards, 1754; 강미진, 2018). 따라서 반발을 신앙적 결핍이 아니라 영적 긴장의 표현으로 해석하는 신학적 감수성이 상담자에게 요구된다.

기독교 상담자는 내담자의 반발 앞에서 신속한 해석이나 판단보다, 그 반응을 구성하는 심리적·신학적 층위를 민감하게 분별해야 한다(Gross, 1998). 반발은 정서적 방어, 과거의 영적 상처, 자기결정권 회복의 욕구, 하나님에 대한 오해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층적 맥락을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반발은 때로 상담자를 향한 것이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정직한 질문의 형태일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통찰은 추상적 분석을 넘어서, 상담 장면 속에서 보다 정교하고 실천적인 해석과 개입을 요청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독교 상담자가 반발과 순종 사이의 전환 가능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천적으로 동반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내담자의 반발을 수용하고 신앙적 응답으로 이끄는 상담의 흐름을 경청-공감-탐색-결정이라는 4단

계 구조로 제안하고자 한다(Collins, 2007). 이 구조는 기계적 절차가 아니라, 상담자가 내담자의 내면에 함께 머무르며 영적 성숙을 동행하는 관계적 태도를 반영한다.

첫째, 경청의 단계에서는 내담자의 반발을 억제하지 않고, 그 감정이 안전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감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Crabb, 1977). 판단 없는 경청은 내담자가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상담자와의 신뢰 관계 안에서 자신의 혼란과 저항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다. 반발은 종종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비롯되기에, 경청은 치유의 첫 조건이 된다.

둘째, 공감의 단계에서는 내담자의 반발 뒤에 숨겨진 정서와 욕구를 민감하게 탐색해야 한다. 반발은 단지 표현된 분노나 거절이 아니라, 상실·두려움·불안과 같은 복합 감정의 결과일 수 있다. 상담자는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를 묻기보다, “그 말 속에 어떤 감정이 있는가”를 탐색함으로써,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Rogers, 1961).

셋째, 탐색의 단계는 반발의 신학적 의미를 성찰하는 과정이다. 내담자의 저항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왜곡된 이미지, 상처받은 신앙 경험 등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으며, 이때 상담자는 신학적 정답을 제공하기보다 내담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재정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Vanhoozer, 2005). 이 탐색은 반발을 해소하기 위한 단계가 아니라, 반발이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면의 이해를 구축하는 여정이다.

넷째, 결정의 단계는 외적 복종이 아닌 내면의 자유로운 응답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상담자는 순종을 요구하거나 서두르기보다, 내담자가 자율성과 신앙적 책임의 균형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Adams, 1970). 이때의 순종은 억압이나 도덕적 압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자발적 응답이 된다. 이는 상담자가 복음을 전달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공간을 조성하는 조율자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이러한 흐름은 Crabb(1977)의 관계 중심 상담, Adams(1970)의 책임 강조 접근, 그리고 Deci & Ryan(1985)의 자기결정이론을 통합한 기독교 상담학적 윤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상담 장면에서 이러한 이상적 흐름을 일관되게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때로는 내담자가 상담자의 경청과 공감을 시험하려는 방식으로 반발을 반복하거나,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기도 한다. 이럴 때 상담자는 자신의 권위 손상이나 한계감을 느낄 수 있으며, 무의식적으로 개입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 이처럼 반발은 상담자에게도 심리적 도전이며, 자신의 신앙적 인내와 전문성을

함께 점검하게 만드는 훈련의 장이 된다.

이런 점에서 상담자는 반발의 순간을 내담자 변화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존재론적 안정성을 지녀야 한다. 즉, 상담자의 정체성은 기술이나 해석 능력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존재하며 내담자의 질문과 저항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Packer, 1973). 내담자의 반발은 하나님의 진리를 밀어내려는 저항이자, 그 진리 앞에 진실하게 서고자 하는 역설적 기도일 수 있다. 상담자는 그 진실함을 가장 먼저 환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Collins(2007)의 말과 같이 참으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스로 의미를 발견하고 신앙적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facilitator)가 되어야 한다. 그가 지적한 대로 복음적 메시지는 정서적 신뢰 없이 전달될 경우, 오히려 내담자의 자율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상담자의 언어와 태도가 복음 자체보다 먼저 신뢰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반발을 '문제'로 간주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탐색하려는 시도로 수용해야 한다. 반발이 반복될수록 오히려 그것이 신앙의 문턱에 가까이 다가섰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상담자는 그 문턱 앞에서 인도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존재해야 한다. 반발은 회피의 표현이기보다는 관계를 다시 구성하고자 하는 신호일 수 있다.

결국 반발은 단절이 아닌 시작이다. 상담자는 반발을 줄이기 위해 개입하기보다, 반발을 말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담자가 "왜 순종이 두려운지"를 말할 수 있는 상담 공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일할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 주는 공간이다. 이 여백은 변화보다 정직, 해답보다 질문, 판단보다 경청이 먼저 오는 자리에서 시작된다(Collins, 2007).

기독교상담은 반발을 신앙적 실패로 보지 않고, 그 안에 담긴 목마름과 갈등을 해석할 수 있는 신학적 상상력을 요구한다. 반발은 그 자체로 해소되어야 할 증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질문이 다시 열리는 통로이다. 상담자는 이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말과 침묵, 언어와 기도의 방식으로 그 길을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반발은 순종으로 가는 통과 의례일 수 있다. 상담자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내담자가 하나님의 초대에 자발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신뢰의 지형'을 조성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상담이 지향하는 반발과 순종 사이의 복음적 여정이며, 그 여정 속에서 상담자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는 존재로 다시 서게 되는 자리이다.

III. 달는 글

본 연구는 기독교상담 장면에서 자주 발생하는 내담자의 반발을 저항이나 불순종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심리학적 이론과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하여 의지의 긴장 구조 안에서 순종으로 이끄는 회복적 여정으로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반발을 상담의 방해 요소나 교정 대상이 아니라, 자율성과 정체성 회복의 출발점으로 이해하려는 통합적 접근은 기독교상담 현장에 새로운 해석틀을 제공한다.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Brehm(1966)의 심리적 반발 이론을 바탕으로 자율성이 위협 받았을 때 발생하는 정서적 반응을 탐색하고, Deci & Ryan(1985)의 자기결정이론을 통해 내담자의 내면 동기와 자율성 회복이 심리적 변화의 핵심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Gross(1998)의 감정조절 이론은 반발이 감정 억제 실패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서적 안전감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Rogers(1961)의 인간중심 상담 이론은 무조건적 존중과 공감의 분위기 속에서만 진정한 자기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담자의 태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신학적으로는 Luther(1957)와 Calvin(1559), Jonathan Edwards(1754), Owen(1674/2004), Murray(1955), Packer(1973) 등의 개혁주의 전통을 통해 자유의지는 타락 이후 무력화되었으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영적 능력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순종은 행위 자체일 뿐 아니라, 성령의 조명과 내면 회복을 통해 자발적으로 드러나는 인격적 응답임이 강조되었다. Vanhoozer(2005)는 순종을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서 맡겨진 역할을 수행하는 실천적 반응’으로 해석하며, 성경을 거대한 내러티브로 읽는 관점에서 상담자의 역할을 ‘이야기 안으로 초대하는 안내자’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본 논문은 실천적 상담 모델을 단정적으로 제안하지는 않으나, 상담자가 반발을 해석하고 수용하며, 순종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독교상담학적 사고 틀(theoretical framework)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Crabb(1977)의 관계 중심 상담과 Adams(1970)의 결단 중심 상담 이론을 바탕으로 정리한 ‘경청-공감-탐색-결정’의 흐름은 내담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복음적 전환을 준비하는 상담의 구조적 리듬으로 제안되며, 이는 현장의 경험적 검토를 통해 더욱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상담적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반발은 억압하거나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담자의 자율성과 정체성 회복

을 위한 신호로 수용되어야 한다.

둘째, 순종은 외적 권면에 따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자발적으로 응답하게 되는 내면의 성숙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셋째, 반발과 순종의 긴장을 정죄하거나 해석에 고착시키기보다,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심리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 상담자의 해석력과 감수성이 요청되는 시대적 과제임을 본 논문은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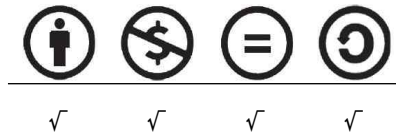
한편 본 연구는 문헌 기반의 이론 고찰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실제 상담 장면에서의 경험적·실천적 뒷받침이 다소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반발 현상을 주로 내담자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었기에, 상담자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반발(counselor reactance)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지시적 개입·방어적 해석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지 못하였다. 또한, 상담자의 권면이나 조언 자체도 인간적·해석학적 한계를 지니며 항상 완전무결한 '성경적 권위'로 기능하지 않을 수 있음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내담자의 반발 행동 이면에는 죄책감·수치심·애증 등 다양한 다층 정서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정서적 층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상담 대화에서 반발이 어떻게 표출되고 순종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질적 연구와 '반발-수용-응답'의 변증법적 흐름을 추적하는 사례 기반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Johnson(2007)이 강조한 바와 같이, 상담은 문제 해결 이상의 사역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을 동반하는 관계적 여정이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독교 상담학적 연구가 요청된다.

결론적으로 반발은 순종을 향한 장애가 아니라, 그 첫 질문이 될 수 있다. 상담자가 그 질문에 정답으로 응답하기보다, 경청과 기다림, 관계와 수용의 태도로 동행할 때, 내담자는 자유의지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응답할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다시 열게 된다. 상담자는 반발을 억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영적 갈등을 해석하고 동반하는 자로서의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하재성, 2015; 신문철, 2023). 이것이야말로 반발을 순종으로 이끄는 기독교상담의 복음적 여정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함께 살아내는 자리일 것이다.

•논문 투고일: 2025년 06월 04일

•논문 수정일: 2025년 07월 06일

•게재 확정일: 2025년 07월 12일



【참고문헌】

- 강미진 (2018). 조나단 에드워즈의 아르미니우스주의 비판: 아이작 왓츠의 자유의지 개념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기독교철학**, 25, 7-28.
- 김미숙, 윤미선 (2010). 청소년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낙인, 기대, 비자발성, 심리적 반발심의 구조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301-328.
- 김은우 (2020).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의지' 개념을 통해 본 도덕 교육적 과제. **윤리교육연구**, 56, 83-119. <http://dx.doi.org/10.18850/JEES.2020.56.04>
- 박옥식, 조희원, 유선경 (2011). 인터넷중독 청소년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 낙인, 기대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반발심의 역할. **청소년복지연구**, 13(4), 251-267.
- 신문철 (2023). 삼위일체적 자유의지론. **조직신학연구**, 43, 50-83. <http://dx.doi.org/10.31777/sst.43..202304.002>
- 이경직 (2016). 칼빈의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자유의지론. **생명과 말씀**, 15, 35-68. <http://dx.doi.org/10.33135/srlt.2016.15..35>
- 이진락 (2016).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유의지론에 대한 개괄적 연구. **개혁논총**, 40, 259-304.
- 이혜련, 김희화 (2015). 청소년의 심리적 반발심 및 부모-자녀 갈등과 가출충동 간의 관계. **인지발달장애학회지**, 6(1), 49-67.
- 조성국 (1998). 칼 로저스(Carl R. Rogers)의 인간주의 심리학적 인간학. **學生生活研究**, 12, 3-15.
- 최영아, 김희화 (2011). 청소년의 심리적 반발심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8(9), 285-308.
- 하재성 (2010). 목회자 Calvin의 신학: 그 실천적 인간상. **성경과 신학**, 53, 137-170.
- 하재성 (2015). 개혁주의 교회론과 교회상담을 통한 영혼돌봄. **생명과 말씀**, 13, 237-265.
- 하재성 (2015). 심리학의 자율성과 신학적 자신감. **목회와 상담**, 24, 169-196. <http://dx.doi.org/10.23905/kspcc.24..201505.006>
- Adams, J. E. (1970). *Competent to counsel: Introduction to nouthetic counseling*. Grand Rapids, MI: Zondervan.
- Baumeister, R. F., & Tierney, J. (2011). *Willpower: Rediscovering the greatest human strength*. New York: Penguin Press.
- Brehm, J. W. (1966). *A theory of psychological reactance*. Cambridge, MA:

- Academic Press.
- Calvin, J. (2006).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H. Beveridge, Trans.).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Original work published 1559).
- Collins, G. R. (2007). *Christian counseling: A comprehensive guide*. Nashville, TN: Thomas Nelson.
- Crabb, L. (1977).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A model for helping caring Christians become capable counselors*. Grand Rapids, MI: Zondervan.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 Edwards, J. (1957). *Freedom of the will*. A. C. Outler (Ed.). Indianapolis, IN: The Bobbs-Merrill Company. (Original work published 1754).
- Gross, J. J. (1998). The emerging field of emotion regulation: An integrative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3), 271-299. <https://doi.org/10.1037/1089-2680.2.3.271>
- Johnson, E. L. (2007). *Foundations for soul care*. Lisle, IL: IVP Academic.
- Luther, M. (1957). *The bondage of the will* (J. I. Packer & O. R. Johnston, Trans.). Chicago: Fleming H. Revell. (Original work published 1525).
- Murray, J. (1955). *Redemption accomplished and applied*. Grand Rapids, MI: Eerdmans.
- Owen, J. (2004). *The Holy Spirit*. B. M. Boyd (Ed.). Grand Rapids, MI: Banner of Truth. (Original work published 1674).
- Packer, J. I. (1973). *Knowing God*. Lisle, IL: InterVarsity Press.
- Peterson, E. H. (2000).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Discipleship in an instant society* (Rev. ed.). Lisle, IL: InterVarsity Press.
- Powlison, D. (2003). *Seeing with new eyes: Counseling and the human condition through the lens of Scripture*. Phillipsburg, NJ: P&R Publishing.
- Rogers, C. R. (1961). *On becoming a person: A therapist's view of psychotherapy*. Boston, MA: Houghton Mifflin.
- Rosenberg, B. D., & Siegel, J. T. (2018). A 50-year review of psychological reactance theory: Do not read this article. *Motivation Science*, 4(4), 281-300. <https://doi.org/10.1037/mot0000091>

- Turretin, F. (1992). *Institutes of elenctic theology* Vols. 1-3 (G. M. Giger, Trans.). J. T. Dennison (Ed.). Phillipsburg, NJ: P&R Publishing
- Vanhoozer, K. J. (2005). *The drama of doctrine: A canonical-linguistic approach to Christian theolog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Abstract]

Psychological Reactance and Free Will in Christian Counseling

Ko, Kwang Je*

This study examines client resistance and free will in Christian counseling. Although obedience is a spiritual virtue, clients may view such expectations as autonomy threats that trigger reactance. Drawing on Brehm's reactance theory, Deci and Ryan's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Gross's emotion-regulation model, the paper frames resistance not as rebellion but as a protective response to perceived autonomy loss and emotional vulnerability.

Theologically, the study engages Reformed voices—Luther, Calvin, and Jonathan Edwards—to explore human will in relation to sin, grace, and obedience. Free will is framed not as autonomous capacity but as a grace-enabled response to God. Christian counseling theorists Crabb and Adams show resistance can function both as a symptom of spiritual tension and a starting point for redemptive change.

This study recasts reactance as a cue to restore autonomy and identity, and views obedience as grace-enabled, voluntary growth, not coerced duty. Counselors should meet the reactance-obedience tension with listening, empathy, and reinterpretation rather than censure. As literature-based, it could not empirically test counselor reactance or guilt-shame dynamics beneath resistance. Future qualitative work tracing “reactance-acceptance-response” dialogues can validate the model. Reactance thus opens a path to obedience, and accompaniment fosters free-will recovery and growth.

Keywords: psychological reactance, free will, Christian counseling, autonomy, spiritual obedience

* Peniel High School / Chaplain